"부처님 말씀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

"21세기 디지털 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들자'는 발원을 모은 사찰 후원법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한달 동안에만 6개 사찰에서 후원법회를 개최했으며, 267가족이 후원을 약정했다.

3월 한달 6곳서 후원법회 · 267가족 동참

법회 후원인 명단

도안사 ▶법공스님 혜자스님 진성스님 ▶안종은(서울 금천구) ▶송현 정은경(경기도 고양시) ▶안미옥(경기도 의정부시) ▶조현곤 조현철 조현수(경남 김해시) ▶이윤현 조현욱 이정원 이도흔(경남 울산시) ▶허미애 이입수 정재현(서울 노원구) ▶정현직 이창숙 정재기 정재준(서울 노원구) ▶김승구(서울 용산구)

진관사 ▶김윤철 김양기 윤경순 김현철(이하 경기도 고양시) ▶윤미란 은능희 윤강진 윤태희 ▶이영순 박주환 박광원 박미선 이현주 ▶김옥순 박윤환 박석원 박정미 박진미 박선미 박현미 최경아 ▶박정애 이기영 마추선 이윤신 이성민 이광수 안영심 ▶신경렬 김군자 신광균 신용균 홍미애 유의숙 이희철 이채은 이예진 ▶김성애 이정행 이건민 이건돈 ▶최원봉 이미옥 최지영 최찬영 ▶김문영 이경숙 김윤진 김성민 유지추 권주미 ▶조용심 조영자 허수재 허영유(경기도 구리시) ▶박정희 임정래 임규환 임미희 구본원 임미라 구형모 구인지(서울 강동구) ▶이인형 이재희 이노성 서하경 이문성 이현미 이현진 이기택 이기웅 이가영(이하 서울 성동구) ▶김갑순 정상지 정은상 정은호 ▶조현곤 정희정 조재환 조재영 ▶이영숙 최사옥 최미경 최종수 이용섭(서울 마포구) ▶한재숙 김지헌 김지영 이문조(이하 서울 서대문구) ▶김옥희 김기성 청정심 김래영 김래현 송철중 ▶이영주 장정환 이성권 이금순 이금숙 이금선 ▶장동례 김항배 김종천 김희연 김인겸 김종영 김유림 ▶최원현 오정현 최중호 최중인(서울 서초구) ▶이창수 유부자 이지선 이지현 이승현(서울 송파구) ▶홍도식 김영준 홍혜인 홍성민(서울 양천구) ▶김수업(서울 양천구) ▶김종철 김혜선 김성민 김성정(이하 서울 은평구) ▶박상원 박치원 이원기 김민지 박주연 박소연 박성준 ▶이용두 이복점 이후근 이정옥 이정아 김태희 ▶김해두 이경자 김정재 김형준 김형민 ▶김유미 홍영백 홍정수 홍창수 최리라 유보현 고성수 김정미 ▶전규환 최인수 전길용 전홍석 전창민 ▶장태성 장용준 장혜연 장수연 장혜운 권수선 장준이 최소덕 ▶이명순 유원영 유정우 김지운 유승희 유정호 윤진수 유지성 ▶윤숙임 조현진 조현균 ▶윤승식 명금자 윤성욱 윤성택 윤성혜 ▶최귀옥 박상득 박정신 박성현 박성훈 ▶김혜경 장은봉 장문호 장준호 김대호 ▶김수웅 김만덕 행 ▶최문정 장현태 장재영 장준영 장윤성 ▶정호양 이상배 ▶이수철 ▶이만수 곽용식 이인후 이경화 ▶양입분 양영환 김순희 양재국 ▶이춘주 허철조 허준 허란 허윤 ▶신순호 노순자 신문수 신문숙 박화순 신기식 ▶박화순 신을호 신상용 신승용 신혜지 ▶이문행 유향자 이지영 이소영 이지선 이준걸(서울 종로구)

승가사 ▶이인남 최승용 이인남 최윤식 김연희 최호재 최정문(경기도 성남시) ▶정영주 박철 정영주 박성훈(경기도 성남시) ▶진재현 홍미선 진주연(경기도 안산시) ▶신영애(경북 칠곡군) ▶오범순 오범석(경기 부천시) ▶박경철 조남원 박선희 박윤성(서울 강남구) ▶김동욱(서울 강동구) ▶임춘하(서울 서대문구) ▶윤옥자 이삼락 목진호 목인수 목경미(서울 서대문구) ▶이은경 이용섭 이한솔 장옥환(서울 서대문구) ▶최순희(서울 용산구) ▶홍인경 양육 이혜준 양지승 양지연 신범철 양승혜 신동익 신아영(서울 종로구)

노적사 ▶장금숙 강가연 강주연 강대화(경기도 양주군) ▶이은경 김옥수 이부송(경기도 의정부시)

극락정사 ▶서삼술 윤성혁 박의호 윤참경 우영숙 윤보경 윤보성 윤보학(서울 강남구) ▶이대근 우숙향 이경석 이동현(서울 강남구) ▶정영숙 백영규 형숙자 백승철 백승민 백수민 김용서 백명희 김민중 김민정 정문수 화(서울 관악구) ▶김일륜심 신민태 신현일 박현숙 신현구 김소연 신의철 신승철 신병철 신경철(서울 관악구) ▶차만석 장순례 차재윤 서선례 차현우 김미해 차정우 차현정(이하 서울 동작구) ▶서청원 ▶오실상화 이철재 이충호 이현민 이충선 이태민 이소영 이충길 이수정 이송이 ▶보철스님 진귀님 변동욱 박옥자 변고관 변기록(사자암) ▶박영순 홍순목 홍준모 홍성표 홍인자 박영순 ▶오명숙 박용근 류경식 오명숙 류승우 류승희 ▶우종생 서보현심 우유택 남미경 우수현 우경원 우동민(서울 서초구) ▶심재문 왕효식 심재문(서울 서초구) ▶류신행월 오문현 오제철 오태복 오승욱(서울 서초구) ▶차재선 박예순 박소미(서울 성동구) ▶서영분 허만 허용구 허미선 심말선(서울 성동구) ▶허숙 최규복 최규동 최정욱(서울 성동구) ▶홍순조 홍기표 정옥순(이하 서울 성북구) ▶정종철 ▶조진호 ▶조영악 박신영 이문호 ▶권태자 최세경 ▶최갑섭 최대우 ▶차귀만 오암전 차인덕 우현숙 차동준 차지은(서울 송파구) ▶소진승 박상백 박노진 박노환 박민선(이하 서울 영등포구) ▶황선호 신찬호 신달수 신한수 ▶이택기 박숙자 이석구 이영혜 이시원 ▶홍복남 한재민 박명혜 한지원

삼성암 ▶김배격 김정남 김제훈 김영선(서울 강남구) ▶이재완 김보각성 이영진 김정아 이주연(서울 강남구) ▶박은화 오세종 오주한(서울 강동구) ▶임정선 민혜림 민자훈 민영근 (서울 강동구) ▶김종순 박남규 박재우 박재복 박재준 박세진 박정진 박경진 박영진 박혜성(서울 광진구) ▶허승구 이정희 허두진 허의재 허연재(서울 금천구) ▶지경철 김영숙 지정연 지기석(서울 노원구) ▶이복순 김연홍 김명식 김광식(서울 송파구) ▶정영인 노혜정 정성헌 정재엽 정휘엽(서울 중랑구) ▶윤윤식(인천 남동구) ▶이경연 황선정 황지현 황수현 황순일 ▶김후영(인천 부평구) 김후영 김적 박청자 김세윤 안지현 김지수 김하성(인천 부평구) ▶권여택 권이범 최용욱 정상미 권예슬 권예지(이하 제주시) ▶권세현 조현주 권소정 권미정 권영훈 ▶백희탁 양치배 김미령 백호중 백주희 ▶윤미란 김연희 윤무실(충남 보령)

천축사 ▶고경숙 이보람(이하 서울 도봉구) ▶박은희 박성완 박재현 박선양 ▶이정금 김성근 김은덕 김진형 ▶황선각 김일명 황아리영

가족 후원인 명단

서울 ▶연순옥 박병식 박성원 이보비(이하 강남구) ▶송영재 박정숙 송민정 송승아 송민수 송종원 ▶홍금숙 강유모 ▶강남국 한서은 강우일 강민재 ▶강남홍 김미영 강우태 강우성 ▶강원준 조수연 강윤호 강민수 ▶정현석 한명희 정광연 정일석 정한석 ▶김정남 ▶김근수 ▶김상한 이희숙 김후동 ▶유성준 유한종 유석종 유진종 유경숙 유희숙 ▶박영숙 맹정호 맹지훈 맹지혜 맹지연 ▶송병우 임후분 송기헌 송정헌(이하 강서구) ▶정홍렬 신현수 정지윤 정성원 ▶고선이 이정호 이승욱(이하 관악구) ▶김인숙 황사수 황병무 황병호 황병기 ▶신태호 박광자 신경수 신정수 신성수(광진구) ▶최상권 이미자 최재혁 최재훈(이하 도봉구) ▶최진성 장을년 최필기 최우일 ▶김옥희 고형곤 고세욱 고세범 ▶오경석(이하 동작구) ▶한순난 손용현 손재우 손재진 ▶수정화 ▶이의재 ▶임재현 ▶민태희 한준호 한상희 한상윤 한종희(이하 서초구) ▶정인순 ▶심월화 ▶김대만 조용화 조우정 조소정(이하 송파구) ▶국형철 이희숙 국경학 국인영 ▶김상갑 김회순 김상갑 유승희 김경훈 김윤정 ▶류창선 서정숙 류제혁 류혜영 ▶김인주 박현정 김재윤 ▶신광철 박미자 신동범(이하 영등포구) ▶조영단 조영숙 조수영 조영미 조영덕 김영철 유영만 조창열 ▶백우현(이하 용산구) ▶김상훈 김찬익 이미자 김세희 ▶정순자(은평구) ▶김세진 김정옥(이하 종로구) ▶두병호 강연심 ▶김철환 무주재 ▶최욱 ▶진현 김정순 진윤희 진은이 진하영 진해영 진하숙 진민선(중구) ▶이난숙 김용근(이하 광진구) ▶김순희 ▶현용주(노원구) ▶최혜경 김경수 김재민 김재현(마포구) ▶한성수 김미자 한소희 한소리 한승모(성동구) ▶정주현 신미현 정은화 정은욱 정은빈(성북구) ▶이순자 우희운 우원규(이하 중랑구) ▶원종욱 박명선 원동연 원영희

부산 ▶김복남 박종복 박상훈 박상준(남구) ▶윤용수 김선애 윤종호 윤대근 윤지원(동래구) ▶허점술 이상욱 이석빈 이명신 이윤정(사하구) ▶조승호 홍계주 조원서 조원철(연제구) ▶김병조 이향미 김보형 김보미(영도구) ▶박백광월(금정구) 엄기복 김정분 엄기주(금정구) ▶서진준 조춘자(진구) ▶허갑성 이분삼 김진희 허원진 허유진(북구) ▶이용갑 윤연희 이도원 이도경 이승열(서구) ▶이현정 허숙(서구) ▶유상현 김연순 유석만(서구) ▶정영숙 이상권 이찬식(수영구) ▶전화식 신영순 전혜정 전효선 전연희(진구) ▶홍정아 곽부수 곽동기 곽동원(이하 해운대구) ▶박광하 안길수 박무곤 김경덕 박경봉 박거봉 ▶하가선 정창길 정세용 정한석

경기 ▶김효성 박천기 박효성 박겸(고양시) ▶이효구(고양시) ▶허학수(구리시) ▶하종은 김갑소 하정일 하지순 하태규(구리시) ▶임점순 임보덕 행 이대승심(군포시) ▶원창호 원정호 조명애 원성훈 원성희(동두천시) ▶천병철 천옥인 조경진 천대웅 김고은 천재현 천우현(부천시) ▶송명희 감승한 김충한 김주한 김태한 김평동 김윤동(부천시) ▶변성란 원종섭 원대연 원정연 원창연(부천시) ▶조정연 김수만 김종완 김종재(성남시) ▶조현장 정봉아 윤상원 조대영 조희정(성남시) ▶이승해(성남시) 현채순 박기한 ▶현채순 박상혁 박상준(성남시) ▶윤영식(송탄시) 이대호(이하 수원시) ▶이종구 ▶조연신 ▶이현재 ▶이종길(안산시) ▶금현주(이하 안양시) ▶혜량스님 ▶김경자 ▶엄금용 김인숙 엄태경 엄보경(이하 용인시) ▶남익수 전선자 남원섭 남효원 ▶김정필 심재경 심은지 심현보 ▶차무항(평택시)

경남 ▶최귀묘(김해시) ▶김선장 전정민(양산시) ▶박문규 전선재 박종언 박종후(양산시) ▶이자윤 허필순 이선정 이효(진해시) ▶김차선 최낙건 박유의 최재봉 최용길(창원시) ▶정종효 김선희 정우성 정우진(창원시) ▶보문스님(합천군) ▶권영현 권재욱 김관점 권성현 이미숙 권호연 권호선 권호일(거창군) ▶이양래 허미선 이진숙 이찬렬 이영구(고성군) ▶박기섭 박수진 박태진(이하 마산시) ▶이영리 이옥정 이현석 이연주 이은희 ▶송정숙 김형진 ▶곽미화 최인백 최상근 최정우(사천시) ▶제종범(통영시)

경북 ▶김철수 김명식 백영자 김영수 김현수 김정안(김천시) ▶정경하 권영욱 정자재성 권오경 권민정(이하 안동시) ▶김호 박경자 정태하 ▶김상동 김갑남 김관현 김금현 ▶윤귀석 이순애 윤지윤(이하 포항시) ▶김영희 이광희 이재준 이재민 김우연 이상원 김경화 ▶정분이 ▶민경석 ▶정영미 ▶심혜순 심일섭(경주시) ▶이수용 이진실 이형조 이홍조(구미시) ▶김종진 한혜정 김지현 김민범(김천시)

광주 ▶김포심 이정길 이철균 김양숙 이영옥 이원석 이현승 이진희(동구) ▶이재옥 문정숙 이현주 이명선 이용선 이종연 김미숙 이민선 이창호(동구) ▶김준순 양금승 양기호 양기연 양동필(북구) 김숙자 최형남 ▶김숙자 최용석 최경석(북구)

대구 ▶김귀연 김순남 김병국 김태윤(남구) ▶윤언년 김옥출 석태호 석성희 석세희(수성구) ▶최해옥 최대도 행 배문정(남구) ▶김정희 성하경 성채원 성상윤(달서구) ▶임영일(북구) ▶정재진 이복영(북구) ▶정성복 이명희 정재민 정성균 정덕균(수성구) ▶윤준삼 윤봉주 윤정화(중구)

대전 ▶조승운 이영순 조아영 조소영(유성구) ▶오승민 오명수 석옥련 오선희 오흥석(동구) ▶최정관 권수옥 최은누 최누리 최준혁(서구) ▶최정택 하홍순 최기화(중구)

인천 ▶윤동근(강화군) ▶임병동 김숙희 임주환(서구) ▶정금섭 조서연 조은비(서구) ▶임종일 정예순 임효택(이하 남동구) ▶임원규 박갑분 임홍길 이옥순 임진환 임지연 ▶강윤호 임남숙 강소연 강영훈 ▶이윤선 김병권 김미라 김재윤 ▶최금자 이종석 이계현 이계린 이필호(북구) ▶갑태식 김태영 김영옥(계양구) ▶감용준 임미원 김호정

※나머지 명단은 추후 게재합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PC통신 유니텔 · 하이텔 팔만대장경 포럼(Go K80000)

캠페인 참여 권유의 말

"국난극복 염원 전산화에 결집"

종후스님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은 국난극복의 의지와 우리 민족의 안녕이라는 염원을 담은 국민적 불사였습니다. 이제 그 불사가 21세기를 향해 다시 태어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화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비정신의 시작입니다.

정보화시대,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 말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법보시, 바로 고려팔만대장경을 세계가 함께 보고 이를 널리 알리는 불사이기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저희 사찰 신도님들의 조그마한 동참이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후원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의 원만성취를 함께 기원합니다. 〈노적사 주지〉

"뜻모아 미래포교 바른길 제시"

몽월스님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후손에게 남겨주는 가장 뜻깊은 불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세를 위한 불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불사라는 생각에 흔쾌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중에서 진행중인 사찰불사가 있음에도 우리 신도님들이 쾌히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고려대장경을 사랑하는 참불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IMF라는 힘든 경제적 고통 속에서 불법을 바로 세우고, 널리 후손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자비로 묶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차 고려대장경이 미래포교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모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우리 시대의 큰일꾼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발원을 해봅니다.

〈극락정사 주지〉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단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특정종교 비하성 발언 공중파TV서 방송 불쾌

공중파TV 방송은 전국민이 시청자인 만큼 모든 부문에서 공정하고 보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월5일 아침8시에 방송된 SBS-TV '출발, 생방송 모닝와이드'에서는 서울대공원 김정만박사가 대구 소싸움을 소개하며 그 유래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자 리포터가 '절도 중도 아니다'는 저속한 비유를 들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불자로서 분노를 느껴 방송이 끝난후 담당PD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특정종교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생방송중 리포터의 즉석 멘트라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변명만 늘어 놓았다.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속어나 비어, 특정종교를 격하시키는 말들은 철저히 삼가 했으면 바란다.

장화숙〈서울시 강남구〉

스님품위 해치는 대사 드라마 방영전 삭제를

3월22일 MBC-TV에서 오전9시에 방영된 일요아침드라마 '사랑밖엔 난몰라'에는 스님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날 드라마에서는 극중 아버지(이순재 분)가 "나도 랩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부인(윤여정 분)이 "랩이 뭐냐?"고 물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김영옥 분)는 "비맞은 스님이 중얼중얼 염불하는 거야"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건너온 노래인 랩송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상관도 없는 스님이 왜 불쑥 거론되는가. 드라마 전개상 전혀 관계없는 특정종교의 성직자를 비하 하면서까지 웃음을 유발하려하는 우리나라 방송 현실에 우울감을 느낀다.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말, 품위있는 표현 등으로 건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김명화〈경기도 여주시〉

수행 정진에만 힘쓰게 스님 노후대책 보장을

불자로서 불교계를 둘러보면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한 노후 보장책 마련인 것 같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걸림이 없어야 한다. 스님의 노후보장이 잘되어 있다면 마음놓고 수행에 매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실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적어도 스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입는것 먹는 것 살곳 걱정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재가불자가 할 일이 아닐까.

장인식〈하이텔 JBMHAA〉

무속인 불상봉안 반대 불교가르침 왜곡 우려

누구든 불상 모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부처를 모시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불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세무민하며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는 그들은 그 대가로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폐해는 부처님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들의 생활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데 있다.

부처님이 복을 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보면 결국 그 과보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명택〈경기도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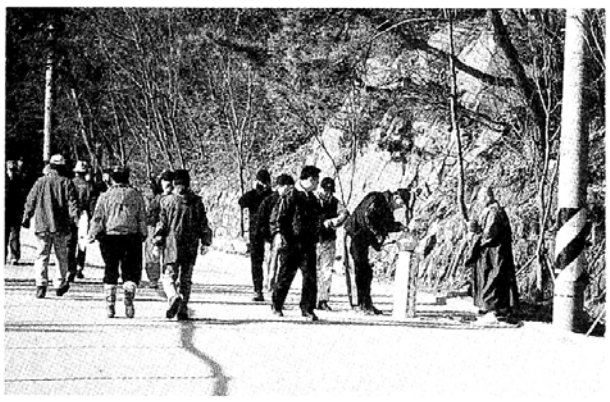
재정악화 교계 방송국 통합으로 살길 모색을

요즘 들리는 불교방송과 불교TV의 재정난 소식에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들이 범람하는 현 시대에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종단의 지원하에 통합해 매체의 특성을 살려 범 불교인의 방송 매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통합이 되면 인건비, 제작비 절감 등으로 재정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또 불자들이 우리들의 방송국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게 돼 기존에 양분됐던 지원금도 한 창구로 단일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숙〈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탁발금지 풀렸나(?)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관악산에 오르던 길에 탁발하는 스님을 봤다. 조계종에서는 개인의 거리탁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조계종 스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리탁발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재현〈서울 종로구〉

독자시

부처님이 나신 땅

부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건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죽은 부처만 찾고 있다네

부처님은 이 땅에 나투셨지만
자기가 스스로 부처이기를 포기하고 믿는다 하고
자기가 알고나서 믿는다고 하여
산 부처를 죽은 부처로 만든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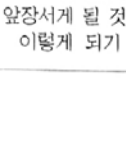
부처님과 자기가 둘이 아니건만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몰라 탐욕에 물들고
미워하는 마음 다스리지 못해 성냄에 물들고
'나' 잘났는 마음 꺾지 못해 어리석음에 물들어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모른다네

부처님은 만물만생을 합해도 한분이건만
'나'라는 생각이 있어 분하고
'나'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여 고통을 받네
'나'가 없어지면
모두가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한 부처가 된다네

이광빈〈서울 강남구〉

산승이 바라는 한국정치

우향스님 기고



산승은 IMF시대에 즈음하여 헛소리를 글로 옮기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한국 경제 난세가 걱정되어 몇마디 말도 안되는 등불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각자 다양한 성씨를 가졌지만, 뿌리는 하나인 한 민족이다.

그런데 대다수 기업인과 정치인이 하심하지 않고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내 이익만 챙겼으며,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데만 힘쓰고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하니 국민 모두가 고통만 되지 않았는가?

경제 위기의 원인은 바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습성에서 왔다고 본다. 각자가 짓는 업에 따라 각자가 받는 업보가 있지만, 한 사회 한 국가 전체가 받는 인과는 공업중생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종교인이 많은 나라도 없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 이면에는 종교인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진다.

미래한국의 경제발전 위상을 끌어올리는 길은 오직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조국의 민심은 세계 방방곡곡에 밝은 횃불을 밝히고 우리 국민은 저 언덕을 넘어 세계 평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향락적 과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서로가 상부상조하여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진정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여 서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셋째, 국민 모두의 대중화합이다. 자타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라.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 진리가 있으니 민주화가 성취되면 과감히 시도하라.

넷째, 일체 사무을 살피되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성의 눈으로 사물을 살펴라.

다섯째, 사사로운 시비로 일들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신뢰를 쌓아 정진하되 삿된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지나간 잘못을 과감히 용서하라.

여섯째, 진심으로 친절하라. 가정과 사회에서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라. 친절은 온 집안의 화목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때, 재산 · 명예 · 부귀 · 공명이 들어오는 문이다.

불가에서 가르치는 중도와 화쟁의 논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도의 사상을 가르쳐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간하고 그렇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자타가 화해 · 화합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덧붙이고 싶다. 앞으로 정치인은 세계인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날의 과거를 뼈저리게 교훈삼아 절대로 보복없는 화해 정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천은정사 주지〉